

● **주님공현대축일강론**

하늘에서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한 동방의 점성가들이 길을 나섭니다. 진정한 임금이 태어나셨으니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유다의 도읍에 임금이 태어나셨을 것이라 짐작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을 수소문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2절)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헤로데 임금과 온 예루살렘은 깜짝 놀랍니다(3절). 먼 길을 마다 않고 선물까지 준비하여 알현을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면서 정작 메시아의 탄생에 금시초문인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이없는 대조를 이룹니다. 탄생 소식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헤로데는 대왕이라는 칭호가 따라 불을 만큼 권세를 누렸지만 정당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권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꼭두각시 임금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친아들마저 의심하고 죽일 정도로 늘 불안에 휩싸여 있었는데, 난데없이 동방의 현인이 찾아와 대뜸 새로나신 유다인들의 임금을 경배하겠다고요.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늙은 왕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급기야 헤로데는 무고한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16절 이하).

폭군 헤로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온 예루살렘’이 경악할 것까지야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외세의 침략과 나라 잃은 슬픔에서 유다인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주던 예전의 그 당당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또한 헤로데와 한통속으로, 헤로데 편에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특권층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헤로데에게 불려온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4-6절)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는 침묵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한바탕 유다 전체가 들쭉였을 텐

데 먼 길을 찾아온 이방 손님들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걸 보면(11절),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분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환영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이런 배척과 환대의 변덕스런 무리 속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임금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도 알아보고 찾아온 별이 지척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별을 가렸을까요? 서울에서도 별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이지만, 그 시절 예루살렘에서도 인간들의 부조리와 탐욕이 하늘의 별을 가렸나 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을 마다하시고, 별들이 총총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 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6절; 미카 5,1) 베들레헴은 내세울 것 없는 곳이지만, 정의로운 임금 다윗이 태어난 고을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하고 이름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자 헤로데는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불러들여 아기를 찾거든 알려 달라고 부탁합니다(7-8절). 아예 아기일 때 짝을 잘라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하려는 희망의 역사를 꺾어버리려는 심산에서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의로운 뜻을 비겁하게도 악한 계획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임금의 오심을 알리는 ‘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부터 쫓아온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을 때,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였습니다(9-10절). 예수님의 첫 손님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11-12절). 마태오 복음사가는 ‘땅에 엎드린다.’는 표현을 오로지 예수께만 연관지어 사용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받

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들은 또한 고향에서 들고 온 진귀한 보물을 예물로 내놓습니다. 충성과 순종의 뜻으로 바친 그들의 세 가지 예물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11-12절).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황금은 예수님이 진정한 임금이심을, 유향은 아기의 신성을, 몰약은 그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황금·유향·몰약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께 바칠 합당한 예물인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이처럼 궁벽한 시골 마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최고의 충성과 순종의 예를 갖추어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들의 선물을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손님들의 정중한 인사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시듯, 온 세상 누구에게나 구원의 약속이 활짝 열려있음을 선포하시듯 말입니다. 헤로데에게 들리지 말라는 소임까지 완수한 동방 박사 일행은 자신들의 순례 여정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12절). 하늘의 징조를 알아본 현인으로서 줄곧 한 별을 쫓아 세상을 떠돌다가, 진정한 임금을 만나 알현하고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첫 손님들한테서 두고두고 배워야겠습니다. 큰 희생을 치를 예수님의 출생을 부담스러워한 적은 없는지, 구원이 시작될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디인지, 기꺼이 바칠 최고의 예물은 무엇인지, 도대체 별을 쫓고 있거나 하는지...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이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이사 60,1)

강지숙(한남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주님 공현 기도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 황금과	누위계신 선물들을 흠송하며 유황몰약	아기를 보고 바쳐드렸네 정성스럽게 바쳐드렸네	
아기여 명백한 나시기 아버지	당신왕국 이표지를 이전부터 맡겨주신	당신권능의 확인하소서 예정하시어 세가지 사명	
황금은 유향은 몰약은 세가지	임금이심 하느님을 치를장례 주님사명	드려내주고 표지해주며 예고해주니 드러나도다	
한다한 너구원의 인간이	고을중에 크고크다 임금님이 되시어서	우뚝한고을 베들레헴아 하늘로부터 내게 나시니	
예언이 아들들을 왕국의 당신의	말해주고 보내주신 하느님께서 처치하고 다스리라고 아드님께	증거한대로 하느님께서 다스리라고 명하시었네	
예언된 땅위의 저멀리 땅속과	그나라는 삼라만상 해돋이서 창공위를	하늘과바다 모두통틀어 해넘이까지 다스리시네	
세상에 영광을 성부와 영광을	당신모습 받으소서 위로자신 길이길이	나타내신주 세세영원히 성령과함께 받으옵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1월 구역모임

- ▶1구역: 1/26(토) 오후 6시, 한승중형제집
- ▶2구역: 1/13(일) 오후 7시, 김직현형제집
- ▶3구역: 1/27(일) 미사후, 박용대형제집
- ▶4구역: 1/26(토) 오후 7시, 이 민형제집
- ▶5구역: 1/12(토) 오후 6시, 오세종자매집
- ▶6구역: 1/19(토) 오후 7시, 이우원형제집

◎ 주문하신 책 찾아가세요

몇 달 전 본당에 주문했던 영성서적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교우들께서는 오늘 미사후에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바느지도회

일자가 9일에서 10일로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1월 10일(목) 오후 7시30분/ 장명길 형제집

◎ 구역장님께 알립니다

각 구역장님께서서는 교우들의 현주소와 영어 이름을 파악하시어 다음 미사때까지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1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 ▶주소 :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 ▶가입방법: 먼저 굿뉴스에 가입하시고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는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월13일(다음주)은 교무금 내는 날입니다

◎ 주간 전례

- ▶1 월 8일(화) 밤 8시, 주님공헌후화요일
- ▶1 월 3일(목) 낮 12시, 주님공헌후목요일
- ▶1 월 3일(목) 밤 8시, 주님공헌후목요일

◎ 2008년 꾸르실리스따 연례 피정

일시 : 08년2월 1일(오후 6시)- 3일(오후5시)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참가비 : \$ 200, 신청마감 : 1월 27일

새로운 시작

'시작'이란 단어는 아름다운 말이다. 한 해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작게는 또 하루의 시작, 시작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 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 달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있다.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나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다.

*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해는 지고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묵은 생각일랑 털어버리고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당신같은 동반자 한 사람만 있으면 1년 365일 하루하루가 늘 생기에 넘칠 것입니다.

미 사 전 레

해 설 | 이정숙 차주 해설 이우원

화 |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왔노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87) 동방의 세 박사
봉 헌 (215) 영원하신 성부
성 체 (182) 신묘하온 이 영적
퇴 장 (100) 동방의 별

독 서

1월 6일 박용대 박명옥
1월 13일 이 민 이활란
1월 20일 이상재 이향숙

봉 헌

1일 6일 노동원 노성은
1월 13일 박용대 박명옥
1월 20일 이 민 이활란

복 사

1월 6일 원영 규환
1월 13일 경은 한힘
1월 20일 하람 지현

2007년 12월 30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30.30
교 무 금:	\$ 20.00
감사헌금:	\$ 60.00
Total:	\$ 810.30

2008-01 2008. 1. 6.

주님공헌대축일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